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10. 6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정책동향 연구부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5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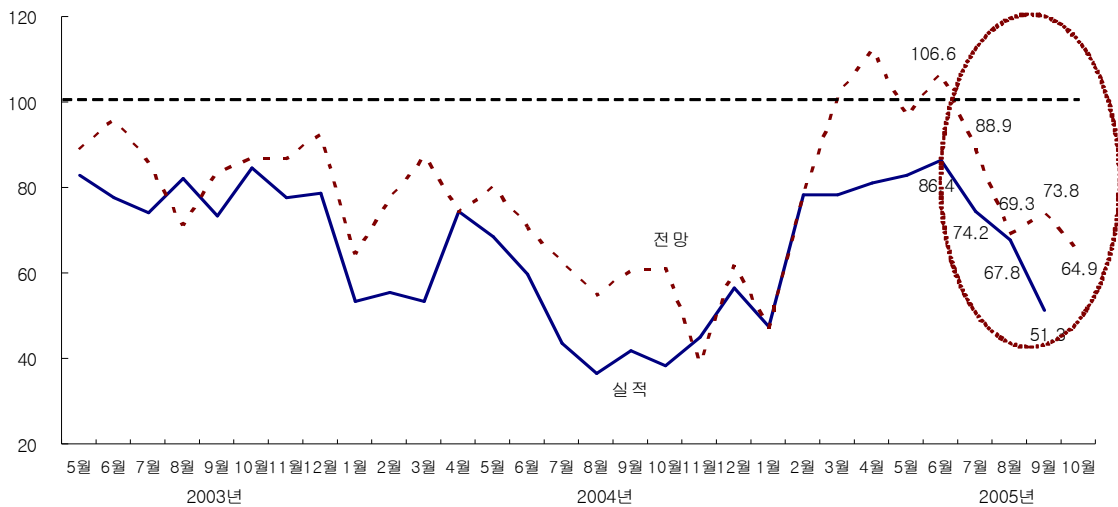
- 2005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1.3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9월에도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짐.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41.7)의 체감경기가 크게 낮아짐. 중견업체(59.1)와 중소기업(53.7)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낮았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50.1)와 지방업체(55.5)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10월 경기(64.9)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공사물량(62.6)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공종별로 보면 모든 공종에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부문의 경우 전월에 비해 지수가 18.6p나 하락함.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58.3)의 공사물량은 주택부문의 영향으로 인해 6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0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2.3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관련 지수가 전월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와 인력의 경우 수급은 원활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다고 업체들은 응답함.
 - 대형업체는 자금관련 지수(공사대금수급; 91.7, 자금조달; 83.3)가 7개월만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2005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9월 CBSI 51.3,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하락세

- 2005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1.3을 기록함.
 - 지수는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 왔으나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 이는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6월 이후 체감경기의 하락과 함께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의 경우 조기발주로 인해 하반기 들어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달청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005년 계획된 시설공사의 92.3%가 기집행됨.

- 민간부문의 경우 8·31대책 이후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체감경기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지수가 크게 낮아짐.
 - 대형업체는 지난달(83.3) 체감경기가 7개월만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데 이어 9월에는 41.7로 더 크게 낮아짐.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59.1, 53.7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았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50.1, 55.5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모두 50선에 머무르고 있음.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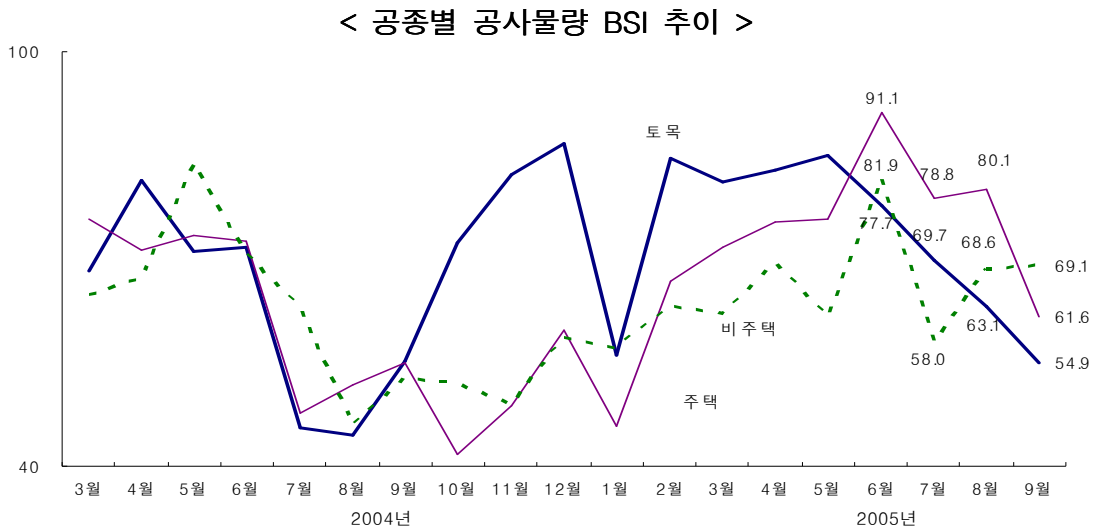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망
총 합		38.2	44.8	56.6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73.8)	64.9
규모 별	대형	33.3	50.0	87.5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	41.7(91.7)	58.3
	중견	43.8	42.1	38.2	56.4	74.5	81.8	81.6	71.0	90.5	76.5	63.9	59.1(59.5)	77.3
	중소	37.5	41.7	41.3	34.1	56.5	49.1	58.8	65.9	57.4	41.5	54.0	53.7(69.4)	58.5
지역 별	서울	38.9	44.9	64.4	50.9	91.3	98.1	96.1	101.6	98.5	86.4	80.9	50.1(75.7)	67.7
	지방	37.2	44.8	43.8	41.2	60.0	50.4	57.7	54.4	63.6	59.8	57.6	55.5(64.4)	76.6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5년 10월 건설경기 전망은 64.9를 기록함.
 - 10월 건설경기 전망은 전월에 비해 8.9p 하락함. 경기전망지수는 하반기 들어 크게 낮아지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형업체(58.3)는 올해 들어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7월 이후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31 대책 이후 주택공사물량 크게 감소

- 공사물량지수는 62.6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18.8p나 하락함.



- 공사물량은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토목물량지수는 54.9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업체(50.0)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문(61.6)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8·31 대책 이후 18.6p나 하락함.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지난달(108.3)보다 50.0p나 하락한 58.3을 기록함.
 - 비주택 부문은 69.1을 기록하여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번 달에는 58.3을 기록하여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물량 지수 모두 50선에 머무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65.6, 67.0을 기록하여,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조사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2.6	58.3	74.4	54.0	65.6	67.0
	전망	82.3	100.0	79.1	65.3	90.5	77.4
토목	실적	54.9	50.0	62.5	52.0	57.2	59.8
	전망	69.8	75.0	68.3	65.3	72.2	60.5
주택	실적	61.6	58.3	75.0	50.0	66.2	66.1
	전망	71.9	75.0	85.0	53.3	80.8	83.5
비주택	실적	69.1	83.3	70.3	51.0	70.3	61.9
	전망	79.4	108.3	66.7	60.0	87.7	57.8

주: 실적은 2005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0월 예측지수임.

- 10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2.3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의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0.0을 기록하여 10월에도 9월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중견업체(79.1)와 중소기업체(65.3)는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자금조달지수 악화

- 공사대금과 자금조달지수는 모두 기준선 밑으로 하락함.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89.3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84.2를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자금관련지수가 6개월째 호조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달에는 전월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관련 지수들이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9.3	91.7	95.5	79.6	89.0	94.0
		전망	89.6	100.0	86.4	81.1	92.1	85.8
	자금조달	실적	84.2	83.3	95.6	72.2	85.4	95.7
		전망	84.2	83.3	91.1	77.4	86.2	93.5
인력	수급	실적	111.3	125.0	102.2	105.7	123.0	100.0
		전망	110.8	116.7	104.4	111.3	117.7	98.5
	인건비	실적	81.0	75.0	86.7	81.5	78.8	86.1
		전망	79.2	66.7	88.9	83.0	73.9	88.3
자재	수급	실적	110.2	108.3	117.8	103.7	115.8	119.0
		전망	108.1	108.3	113.3	101.9	112.3	111.7
	비용	실적	69.2	66.7	75.6	64.8	77.0	77.5
		전망	73.6	75.0	75.6	69.8	81.1	70.1

주 : 실적은 2005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0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은 수급은 원활하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111.3)과 자재수급(110.2)은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과 자재의 수급은 규모별·지역별 모두 원활한 상태임.
 - 인건비(81.0)와 자재비(69.2)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10월에도 인력·자재의 비용이 여전히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인력과 자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력수급:110.8, 자재수급:108.1)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비용(인건비:79.2, 자재비:73.6)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